

월계수양복점 신사들

4회 연장...시청률 40% 기대



아날로그에 대한 향수·차인표 코믹 연기로 반전 묘미 잘 살려

“시청률 40%? 당연히 기대하죠”
KBS 2TV 주말극 ‘월계수 양복점 신사들’의 배경수 CP는 이렇게 말하면서 “지금의 추세라면 가능하지 않을까 본다”며 웃었다.
지난 8일 시청률 35%를 넘어서 ‘월계수 양복점 신사들’은 인기로 힘입어 4회 연장을 확정, 다음달 26일 종영한다. 주말 안방극장을 사로잡은 이 드라마의 인기 비결은 무엇일까.
배경수 CP는 “약간의 촌스러움으로 무장한 것이 아날로그에 대한 향수를 불러일으켰다”고 평가했다.
드라마는 한때 번성했으나 어느새 폐업 위기로 내몰린 100년 역사의 월계수 양복점이 화생하는 과정을 중심에 놓았다. ‘패스트 패션’이 점령한 패션계에서 ‘수제 양복’은 설 자리가 사라진 지 오래다. 그러나 양복 장인이 한땀 한땀 손으로 만든 수제 양복의 가치마저 사라진 것은 아니다.
드라마는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 평생 양복을 만드는 자부심 하나로 살아온 이만술(신구 분) 사장을 중심으로 세상의 변화지 않는 가치를 조명했다. 굴지의 패션 회사 사위가 된 이만술 회장의 ‘잘난 아들’ 동진(이동건)은 처음에는 월계수 양복점을 거들 따보지도 않았다. 가업을 잇지 않겠다고 한 것은 물론이고, 지금 시대에 동네 양복점을 고집스럽게 운영하는 아버지를 이해하지 못했다.
하지만 이런저런 우여곡절 끝에 동진이 아버지에 이어 양복점을 맡게 되면서 시청자들도 동진을 따

라 월계수 양복점이 간직한 세월과 가치를 좇아가게 된다.
드라마가 시청률 35%를 넘긴다는 것은 남녀노소를 사로잡았다는 의미다. ‘월계수 양복점 신사들’은 ‘구닥다리 사랑’과 신세대 사랑을 조화시키며 폭넓은 시청자층을 사로잡았다.
이 드라마의 중심에는 ‘시대착오적’이라는 말이 절로 나오는 커플이 있다. 재벌가에 장가갔다가 이혼하고 회사에서 쫓겨난 동진이 월계수 양복점에서 일해온 고졸의 아가씨 연실(조은희)과 사랑에 빠지고 결혼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은 만지가 풀풀 나는 ‘구닥다리’ 이야기다.
연실은 연약하고 수동적이며, 순종적인 여성상을 대표하고 동진과의 관계에서 ‘신남 차이’를 극명하게 노출한다. 동진의 엄마(김영애)가 그간 연실을 딸처럼 예뻐했으나 잘난 자기 아들과 사간다고 하자 언급생심 말도 안 되는 일이라며 돌변한 것은 이 드라마의 ‘낯은’ 지점이다.
하지만 그런 동진-연실 커플의 이야기는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 ‘인식상장’으로 통하는 공감대를 형성하며 ‘어른’ 시청자들을 매료시켰다.
드라마가 그리는 사랑이 여기에서 그쳤다면 지금과 같은 인기는 힘들었을 것이다. 신세대 사랑이 적절하게 조화돼 ‘구닥다리 사랑’의 약점을 상쇄한 것이 주효했다.
재벌 아가씨 민효련(이세영)이 연실과는 정반대

로 능동적이고 주제적인 여성상을 그리며 강태양(현우)의 마음을 얻어가는 과정은 오늘의 신세대 마음을 사로잡았다. 이런저런 소동 끝에 맺어진 효원-태양 커플은 이후 ‘짱냥짱냥 커플’을 대변하며 극의 명도와 채도를 한껏 끌어올렸다. 여기에 동숙(오현경)과 선녀(라미란)도 적극적으로 씩씩한 여성성의 모습으로 자신의 사랑을 지키고 쟁취해 신세대식 사랑에 무게를 더했다.
차인표가 오랜만에 코미디에 몸을 던진 것은 신의 한 수로 평가된다. ‘월계수 양복점’에서 만든 근사한 양복을 입는 손님이 되어야 할 것 같은 차인표가 가난한 양복점 재단사로 변신해 괄괄한 아내에게 째깍없이 켜여사는 모습은 ‘반전’으로 다가왔다. 한창 코믹 연기로 상승가도를 달리고 있는 라미란이 그의 부인을 맡은 것 역시 반전의 묘미를 극대화했다.
전혀 어울려 보이지 않는 차인표-라미란이 능청스럽게 펼치는 연기는 드라마에 이색 포인트로 작용하며 흥미를 유발했다.
여기에 배신과 거짓말, 협박, 폭행, 납치 등 자극적인 요소들이 끊임없이 등장해 긴장감을 높이고 다들 회를 공급하게 만든 점도 흥행 포인트다. ‘백년의 유산’ ‘전설의 마녀’를 히트시켰으나 ‘막장 드라마’라는 비난에 직면해야 했던 구현숙 작가는 ‘월계수 양복점 신사들’에서는 자극적인 소재를 쓰되 그 수위를 낮추고, 대신 인물의 감정을 더 살리는 방식으로 드라마를 끌어나가 변신에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오랜 기다림 끝...대박 영화 탄생할까

박광현 ‘조작된 도시’·이수연 ‘해빙’ 개봉 앞둔

‘월کم 투 동막골’(2005)의 박광현 감독이 12년 만에 신작 ‘조작된 도시’를 선보인다.
다음달 9일 개봉하는 ‘조작된 도시’는 단 3분16초 만에 살인자로 조작된 남자가 게임 멤버들과 함께 사건의 실체를 파헤치는 내용의 범죄 액션 영화다.
박 감독은 최근 제작보고회에서 “12년간 배수 생활을 하면서 영화를 볼 기회가 많았다”면서 “적어도 한국에서는 처음 보는 범죄 액션 영화를 만들고 싶었다”고 포부를 밝혔다.
‘월کم 투 동막골’로 800만명을 동원한 박 감독이 신작을 내놓는데 10년 이상의 세월이 걸린 것을 보면 흥행에 실패한 감독들의 경우 공백기가 더 길어질 수밖에 없다.
‘4인용 식탁’(2003)의 이수연 감독은 무려 14년 만에 신작 ‘해빙’으로 돌아왔다. 3월 개봉을 앞둔 ‘해빙’은 살인 사건의 공포와 맞닥

뜨리는 한 내과 의사의 이야기를 그린 심리 스릴러물.
박신양과 전지현이 주연한 심령스릴러 영화 ‘4인용 식탁’으로 신선한 충격을 준 이 감독은 신작에서 미스터리한 사건에 휘말린 인물이 겪는 두려움과 갈등, 분노 등을 섬세하게 그려낸다.
지난해 이계백 감독은 ‘아수와 미녀’(2005) 이후 11년 만에 신작 ‘러키’를 선보여 예상치 못한 흥행을 누리며 ‘럭키가이’로 떠올랐다.
이언희 감독은 ‘어깨너머의 연인’(2007) 이후 9년만인 지난해 11월 공효진·엄지원 주연의 ‘미생:사라진 여자’로 복귀했다. ‘미생’도 115만 명을 동원하며 어느 정도 흥행했다.
‘아수라’의 김성수 감독도 ‘영여 완전정복’(2003) 이후 10년의 공백기를 보낸 뒤 2013년에 영화 ‘감기’를 내놔다.



원더걸스 10년 만에 해체

예은·선미 재계약 포기...내달 10일 굿바이 싱글

결그룹 원더걸스가 데뷔 10년 만에 해체한다.
소속사 JYP엔터테인먼트는 “짧지 않은 시간 동안 멤버들 간에 또 회사와 여러 가지 의견을 나눈 결과 그룹 원더걸스는 해체를 결정하게 됐다”고 26일 밝혔다.
JYP는 이어 “멤버 중 유빈과 해림은 JYP와 재계약을 체결했으며, 향후 음악·연기·MC 등 다방면으로 새로운 모습을 보여드릴 예정”이라며 “예은과 선미는 많은 고민 끝에 스스로 길을 새로 개척하고자 아쉽지만 회사

를 떠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JYP는 “지난 10년간 한결같은 마음으로 지켜봐 주셨던 팬분들께 감사 인사 의미로 데뷔 10주년인 2월 10일에 마지막 디지털 싱글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JYP는 “지난 10년간 원더걸스의 대장정에 함께해 주셨던 전 세계의 팬들께 감사 인사를 드린다”며 “떠나는 멤버와 남은 멤버 모두의 발전적인 미래를 위해 앞으로도 서로 돕고 의논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TV 프로그램 31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 / SBS
6	00 KBS 뉴스광장	10 걸어서 세계속으로(재)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00 생방송 아침이 좋다	20 광주MBC 뉴스투데이 50 MBC 아침드라마 <연세나 봄날>	30 KBC 모닝 730
8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360도 지구 한바퀴	25 TV블로그 꿈지락 30 아침연속극 <아임 소리 강남구>
9	30 KBS 뉴스	00 TV 소설 <저 하늘에 태양이> 40 여유 만만	30 MBC 생활뉴스 45 기분 좋은 날	10 좋은 아침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40 지구촌 뉴스		10 SBS 뉴스 25 SBS 생활경제 40 KBC 생활뉴스
11	00 힐링다큐 3부작 <나무야 나무야>(재) 55 숨터(재)	00 살림하는 남자들 (재)	00 월화드라마 <역적:백성을 훔친 도적>(재)	00 아빠가 들려주는 이야기 특독 30 꾸러기 탐구생활
12	00 KBS 뉴스 12	00 생생정보 스페셜	00 MBC 정오뉴스 20 TV속의 TV	00 SBS 12뉴스 30 KBC 12뉴스 50 TV블로그 꿈지락 55 세상발견 유레카 (715회)
1	00 시청자칼럼 우리 사는 세상 05 KBS네트워크특선 뮤직토크쇼 가요1번지 55 생로병사의 비밀(재)	00 1대 100	20 문화사색 (재)	55 닥터 365
2	50 설기획 가요무대(재)	00 KBS 뉴스타임 10 세상의 모든 다큐(재)	05 내꺼야 폭록 30 꾸러기 식사교실	00 2시, 뉴스브리핑
3	50 세계는 지금 스페셜	00 자동공부책상 위기2 30 TV유치원	00 MBC 뉴스 10 독? 똑! 키즈스쿨 55 응개 쇼타타 2	00 영재발굴단
4	00 4시 뉴스집중	00 여유만만(재)	25 MBC 일일특별기획 <황금주머니>(재)	00 4시, 뉴스브리핑
5	00 KBS 뉴스 5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오그래피	00 설 기획 VJ 특공대(재)	00 MBC 이브닝 뉴스	00 SBS 오뉴스 50 KBC저녁 뉴스
6	00 6시 내고향 55 시청자칼럼 우리 사는 세상	00 KBS 뉴스타임 20 2TV 생생정보	20 생방송 빛날	05 날씨와 생활 10 닥터365 15 교향견문록 남도에 살았어랏다
7	00 KBS 뉴스7 35 시사현장 맥	50 일일드라마 <다시, 첫사랑>	15 일일연속극 <행복을 주는 사람> 55 MBC 뉴스데스크	15 TV블로그 꿈지락 20 일일드라마 <사랑은 방울방울>
8	00 집중 인터뷰 이사람 25 빛나라 은수	30 글로벌 24 55 1대100	55 MBC 일일특별기획 <황금주머니>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본격연예 한밤
9	00 KBS 뉴스9		30 리얼스토리 논	
10	00 특별기획 대선 주자에게 듣는다	00 월화드라마 <화랑>	00 월화드라마 <역적:백성을 훔친 도적>	00 월화드라마 <피고인>
11	00 KBS 뉴스라인 40 콘서트 필(재)	10 살림하는 남자들	10 PD수첩	10 불타는 청춘
12	30 특특선 UHD특집다큐 <한국의 서원>(재)	35 유비뱅크	05 MBC 뉴스24 15 MBC 100분 토론	30 나이트 라인

EBS 1			
05:00 EBS세 생활영어 05:30 세계견문록 아틀라스 <일본 개항사 2부 화문양재, 돈가스와 스모> 06:00 한국기행(재) 06:20 세계테마기행(재) 07:00 레이디 비그 07:30 로보카 폴리 07:45 꼬마버스 타요 08:00 당동당 유치원 1~2 08:45 부릉부릉! 브루미즈 09:00 방귀대장 뽕뽕이 09:15 출동! 슈퍼원스 09:30 이입! 스페이스 정글	09:40 부모 <위대한 엄마>(재) 10:30 한국기행(재) 10:50 최고의 요리비결 <수두부 짬뽕> 11:20 세계테마기행(재) 12:00 EBS 정오 뉴스 12:10 미스터리 휴먼 다큐(재) 12:40 지식체널6 12:45 숨은 한국 찾기(재) 13:35 뷰티풀 코리아 13:40 즐겨찾 수확 EBS MATH 13:50 그림을 그려요 2 13:55 캐니멀 14:25 정글에서 살아남기(재)	14:55 모피와 친구들 15:05 피터 래빗 15:20 우주탐험가 젯 15:35 요술 상자 2 15:45 코코몽 3 16:15 방귀대장 뽕뽕이(재) 16:30 부릉부릉! 브루미즈(재) 16:45 당동당 유치원1~2(재) 17:15 엄마 개구리(재) 17:30 로보카 폴리(재) 17:45 꼬마버스 타요(재) 18:00 생방송 특!톡! 보니하니1~4 19:00 소피 루비 19:30 EBS뉴스	19:50 극한직업 20:40 다큐 오늘 20:50 세계테마기행 <남국의 매력적 품은 성, 타이완 2부 대지연의 심장부를 건다> 21:30 한국기행 <오지마라 오지 2부 오지의 추적자> 21:50 EBS 다크프라이 <한반도 대서사시 나무 2부 느티나무가 있는 마을> 22:45 리얼극장-행복 23:35 미스터리 휴먼 다큐 24:05 세상의 모든 범죄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子	48년생 기대치 이상의 성과가 나타나서 만족스러워하는 국량이 크다. 60년생 발전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다. 72년생 전례 예상치 못 했던 곳에서 발생하여 황당하겠다. 84년생 당래지사가 활기를 띠면서 대폭적인 진전을 보이겠다. 행운의 숫자 : 31, 26	午	42년생 노심초사하며 우려해 왔던 사건이 실제로 타지겠다. 54년생 가까이 있어 보이지만 사실은 상당히 멀다. 66년생 숨어있는 의미까지 파악하는 것이 지혜롭다. 78년생 내버려 두고 상관 없다. 90년생 관리와 확인이 절실하다. 행운의 숫자 : 32, 74
丑	49년생 성장을 위한 진통제가 되리라. 61년생 이제부터 본격적인 상황이 전개될 것이다. 73년생 수고로움을 감수한다면 분명 것 얻는 바가 많을 것이다. 85년생 재반사가 서서히 풀려나갈 것이니 마음 편하게 가져다 된다. 행운의 숫자 : 91, 79	未	43년생 결부 지을 필요까지는 없었다. 55년생 함들겠지만 결실이 많고 알할 것이다. 67년생 명확해야만 뒤탈을 얻을 수 있다. 79년생 도전에 불만을 가지기 충분해 있다. 91년생 기본적인 입장부터 제대로 정리해야겠다. 행운의 숫자 : 01, 41
寅	50년생 어설픔게 대하면 여러 가지 단처가 드러날 수다. 62년생 불변하다면 망설이지 말고 개운하게 뜯어고쳐야 후회가 없을 것이다. 74년생 자세히 들여다보면 미흡한 점이 보일 것이다. 86년생 구체적이고 실제적이어야만 한다. 행운의 숫자 : 83, 48	申	44년생 활력소가 될 수 있는 조건이 갖추어지리라. 56년생 이제 헛수고는 그만 하는 것이 나으니 미련을 버려라. 68년생 쇠는 뜨거울 때 두드려라. 80년생 표면에 드러나지는 않지만 반드시 작용하고 있느니라. 행운의 숫자 : 09, 51
卯	51년생 다양성의 확보는 무궁한 발전의 여지를 제공하리라. 63년생 적극적으로 타계책을 강구해야만 할 것이다. 75년생 지극히 조그마한 차이이므로 하등의 문제가 되지 않는다. 87년생 구태의연함에서 벗어나야 한다. 행운의 숫자 : 69, 16	酉	45년생 형국이 중도에 급변할 수 있는 판세이다. 57년생 미래를 위한 자양분이 되어 주리라. 69년생 폭 넓은 번수를 갖게 된다. 81년생 가까스로 들어오기는 하지만 나에게는 될 것이 훨씬 더 많으니 별다른 의미가 없었다. 행운의 숫자 : 39, 18
辰	52년생 드러난 사세, 그대로이니 일반적인 입장을 취해도 된다. 64년생 아무리 살펴보아도 쓸모가 없을 것이다. 76년생 조건을 날날이 고려한다면 의증을 파악할 수 있다. 88년생 면밀히 대조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행운의 숫자 : 07, 34	戌	46년생 소모적인 요소는 과감하게 청산해야 한다. 58년생 상당한 거리를 둔 채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다. 70년생 여태까지 해왔던 방식대로 하는 것이 가장 무난하다. 82년생 숨은 카드를 꺼내놓아야 할 결정적인 시기이다. 행운의 숫자 : 03, 85
巳	53년생 성심으로써 노력한다면 분명히 대가가 주어질 것이다. 65년생 애정된 절차대로만 이행한다면 소기의 성과를 거두리라. 77년생 결정적인 신호는 느낌으로써 올 것이다. 89년생 한 마디로 기가 막히리라. 행운의 숫자 : 78, 77	亥	47년생 급히 손질해야 할 부분이 보이니 지체 없이 조치하라. 59년생 바람이 몹시 세계 불어 연줄이 끊어질 수도 있는 상태이다. 71년생 알면서도 빠져들 수 있느니라. 83년생 이미 물 건너 가버렸도다. 행운의 숫자 : 87, 23
“전화상담도 받습니다. 광주일보 독자환영” ☎010-9790-8237			